

광고 공방... 중재 필요

백양사

대립 '일파만파'

장성군

백양사(주지 지선)가 정부시책으로 전남도의 조건부허가까지 받아 추진해온 남골담을 장성군(군수 김홍식)이 협오사설로 비하하며 예산결재를 거부해 불거진 백양사-장성군의 대립양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본지 124 125 128호 참조)

백양사와 장성군이 일간지 광고 공방전까지 치달으며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의장 월주) 실천 불교승가회가 군측의 사과를 촉구했고, 장성군의회(의장 조봉래)가 5월29일 '백양사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장성청년회의소(JC) 장용군회장은 "군행정에 문제가 있는만큼 군에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지 않을 경우 JC 전남지역청년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정부에 사태수습 요구 본사주지회의 군측사과 촉구 군의회 특위구성 진상조사

각 단체별로 잇단 성명을 내고있는 교계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군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진상파악을 토대로 정부에 사태수습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백양사와 장성군은 5월26일 무등일보 2~3면 양면에 각각 광고를 게재했다. 백양사는 광고에서 "군수가 개인소유인 백운각호텔이 점유한 백양사당 30여평을 팔것과 대형호텔을 신축하기위해 대형

관정을 파겠다는 것, 모델양의 공인관리소 매포소가 영업지장에 따른 이전요청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광고문에서 백양사는 요구를 거절하자, 군수가 되고난후 지금까지 2년간 백양사당 4곳에 무단으로 관정을 파고 백양사에서 하는



백양사 30여평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장성군수 소유의 백운각 모델 전경.

고려초의 쌍탑(보물 12·13호)이 자리잡고 있는 중공리사지(경기도 하남시)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왕복 4차선 구리~관교간 고속도로 준공리 일대 19.3km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결정, 다음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일대는 백제초기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91년 사적 352호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구리-관교 고속도로 확장 준공리사지 훼손 위기

역이다. 만약 고속도로가 뚫리면 문화재보호구역 1만5천여㎡이 도로에 편입되고 도로와 담과의 거리가 고작 20여m밖에 되지 않아 차량진동 등으로 인한 붕괴가 우려된다. 하남시측은 3월 문화체육부에 '공동저지'를 요청하고,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절대불가'의 뜻을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측은 4월28일 "도로확장공사에 앞서 문화재 발굴작업을 먼저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교수 236명

"천년 古都 지키자"

보존특별법제정등 선언문 채택

동국대 경주캠퍼스, 위덕대, 경주대 등 3개대학 2백36명의 교수들이 경주보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교수들은 5월 20일 정오 경주 계림파크에서 '고도경주를 걱정하는 경주지역 교수모임'을 결성한 뒤 '역사도시 경주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제하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황성공원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 공사 중단 △고도보존을 위한 경주지역특별법 제정 △경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경주청년회의소는 5월 23

일 경주JC회관에서 국립공원 경주남산(사적 제311호)보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남산의 유류입장과 남산에 건립되어 있는 경주교도소, 통일전의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경마장 백지화 촉구 고고학회등 15개 단체**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를 비롯 15개 단체는 5월30일 5천여 명이 서명한 '경주 경마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경마장 건설계획을 즉

선원사 유물전시관 4일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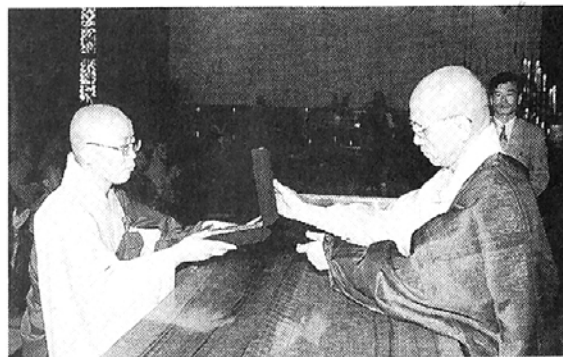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판각성지 강화도 선원사(주지 성원)가 4일 유물전시관을 개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선원사지 발굴에 이어 유물전시관을 건립함으로써 선원사는 고려 2대 선왕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총 44평 규모의 전시관에는 제1대주지 진명국사진영을 비롯 대장경판, 보살화전, 지정원년명선원

사목등, 청자류 등 1백39점의 유물과 2백점의 사진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발굴된 유물들은 동국대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거쳐 차후에 전시된다. 성원스님은 "선원사를 복원하고자 유물전시관을 우선 개관하게 됐다"며 "불교문화가 살아숨쉬는 산 역사의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각 철회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황성공원에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경주는 폐허에 처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직영사찰 예산유용 법규위에 심판청구

...총회의원들의 모임'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총회의원들의 모임(공동대표 정우 종광 현소 상문 지현)은 5월 22일 법규위원회(위원장 벽파스님)에 직영사찰 예산의 유용과 횡령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모임은 5월 29일 △선원사의 지출내역 분석자료(96~97년) △개달음의 사회화 기금 수입장부(의명의 불자부분) 등을 공개하면서 "현 집행부는 직영사찰 예산을 부당지출(95년 7억여, 96년 9억여)해 중한증법을 위해 하며 청정교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심판 청구사유를 밝혔다.



26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이 봉축상을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마음선원 '최우수상' 봉축위, 우수단체시상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가 5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 봉축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이 연등축제의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받았다. 한마음선원은 연등법회 제등행진 회향식 전과정에서 준비상태, 대중친화력, 질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연등상은 정봉사, 원력상은 도선사, 봉은사, 칠보사 유치원, 능인선원, 보문중 보문사가 받았으며 정진상에는 조계사 어린이회, 천축사, 경향신문불자회, 내발발자모임, 대불련, 연합합창단, 특별상은 월간불광, 은석초등학교 연화어린이회, 연화플라워가 각각 수상했다.

대중친화력, 질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연등상은 정봉사, 원력상은 도선사, 봉은사, 칠보사 유치원, 능인선원, 보문중 보문사가 받았으며 정진상에는 조계사 어린이회, 천축사, 경향신문불자회, 내발발자모임, 대불련, 연합합창단, 특별상은 월간불광, 은석초등학교 연화어린이회, 연화플라워가 각각 수상했다.

대행스님 LA·시카고 대법회

13일-LA, 21일-시카고

미국내 한국불교의 본산인 LA와 시카고에서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본지 명예회장·사진) 초청 대법회가 2천여 교민과 현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열렸다. 대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주 불자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깨닫게 하고, "삶은 고(苦)가 아님"을 설교,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지원(지원장 혜지) 21일 노스 쇼어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대행스님은 9일 출국한다.

종단협 인사 20여명 16일 중국 성지순례

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중국불교협회(회장 조박초)의 초청으로 중국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이번 순례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총무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등 12개 종단 2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단간의 불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종단협의회는 운영에 대해서도 평소 조계종 독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종단들이 봉축행사까지 불화를 겪는다면 이는 불교위상 추락과 직결된다. 특히 봉축행사 단독 개최의 파장은 향후 불교연합행사가 범종교연합행사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한국불교'가 '조계종불교'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예산확보나 행사추진과정

뉴스 & 뉴스

월하스님 종정사임 고수

월하스님 종정사임과 관련 5월23일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통도사 정변전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월주 총무원장, 지하 중앙승가대총장을 비롯 설조 불국사주지 등 17개 교구본사 30여명이 참석, 종정직 사퇴의사를 반려했다. 종정스님 친견이후 설조스님(교구본사 주지회의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종단원들이 종단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사퇴의사를 반려했다. 월하스님은 "사퇴의사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총회 9일부터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정)는 9일부터 13일까지(5일간) 제1백26회 임시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는 4월 15일 성원미달로 자동폐회된 1백25회 총회에서 이월된 △선원사 직영사찰 해제 △불교방송 사태 진상조사 특위구성 등 20여개 안건이 재상정됐다.

불방형령 관련자 고발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률고대 책임위원회(이하 법대위)'는 5월27일 대검찰청 특수부에 종하스님(불교방송 이사) 조태형씨(전 불교방송 사장) 송병욱씨(전 불교방송 상무) 김동신씨(불교방송 경리부장)를 업무상 횡령·무고죄 등으로 고소·고발 조치했다.

전직대통령 서명운동 '물익'

5월초 중앙승가대 학생회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 벌인 서명운동이 발목을 밟자 이번 시간을 주둔한 학생회장 무량스님이 사퇴하고 총장 지하스님이 해명해 나갔다. 지하스님은 "이번 사건이 학생회장 개인의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배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새 총학생회장에게 문수스님(불교학 3년)이 선출됐다.

에서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불자화합의 장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화를 겪는다면 이는 불교위상 추락과 직결된다. 특히 봉축행사 단독 개최의 파장은 향후 불교연합행사가 범종교연합행사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한국불교'가 '조계종불교'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예산확보나 행사추진과정

부처님오신날 단독개최

개최의 파장은 향후 불교연합행사가 범종교연합행사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한국불교'가 '조계종불교'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예산확보나 행사추진과정

목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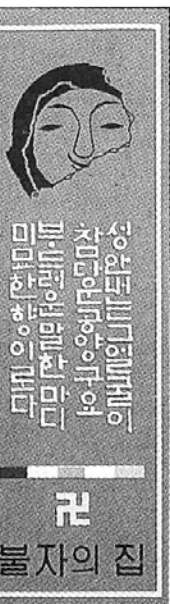
김중근 <취재1부 기자>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크기 : 6cm×7.5cm



▲ 크기 : 3.5cm×10.5cm

- 특징
-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 3. 반영구적입니다.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 · 7 팩스:(02)738-8682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 항상 지니면서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 국민판(10.5cm×14.8cm) 356p · 고급비닐커버 정가 2,500원
- ▲ 국민판(10.5cm×14.8cm) 256p · 고급비닐커버 정가 2,000원

♣ 법보시 하실 사람 환영합니다. ♣

우리말 지장경

헤런 일화 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지장경을 우리말로 쉽게 해설한 필독서!!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금장 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영험록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 · 723-4307 팩스:(02)738-8682